

〈설공찬전〉과 〈金鳳釵記〉에 나타난 還魂 양상 비교 연구

구 서 경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수료)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설공찬전〉과 『전등신화』 소재 〈금봉채기〉를 비교하면서 두 작품에서 활용한 환혼 모티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로, 두 작품은 분명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차이점도 역시 없지 않다. 공통점은 첫째, 주인공이 죽고 나서 저승으로 갔으나 저승 관리(官吏) 즉 명사(冥司)에게 다시 이승에 돌아가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다. 둘째, 주인공의 영혼이 이승에 돌아와 환혼을 한다. 셋째, 환혼하는 대상은 주인공의 친척이나 가족이다. 넷째,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환혼하여 원한을 푼다. 다섯째, 환혼된 대상의 신체가 병들거나 기운이 없는 것이다. 차이점은 첫째, 〈금봉채기〉에서는 흥망을 퇴마하지 않은 것이고 반면에 〈설공찬전〉에서는 설공찬을 퇴마하는 장면이 나온다. 둘째 〈금봉채기〉에서는 저승 이야기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설공찬전〉에서는 그것을 주로 다루었다.

시기적으로 후대에 창작된 〈설공찬전〉이 〈금봉채기〉의 환혼 모티프를 수용할 수도 있지만 〈설공찬전〉만의 특색이 명확하기에 단순 수용보다 작가 채수의 개인 창작력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 환혼 모티프가 〈설공찬전〉에 인기를 가져다주었으나 동시에 치명적인 데미지도 초래하였다. 그것은 〈설공찬전〉이 금서가 되었다가 결국에 불로 태워져 버리게 된 운명이다. 또한 이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후대 작품은 더 이상 이 몸을 빌려 환혼하는 모티프를 활용할 수 없게끔 된 것이다. 이에 중국의 많은 환혼류 소설과 달리 한국에서 다른 사람 몸을 빌려 환혼하는 모티프를 활용한 〈설공찬전〉은 그의 독자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다.

주제어 : 還魂, 〈설공찬전〉, 〈금봉채기〉, 『전등신화』, 還魂類 소설, 한·중 비교

1. 머리말

<설공찬전>은 채수의 작품으로써 1511년에 내용이 풍속을 문란(紊亂)하게 한다는 탄핵으로 인해 불태워지고 실전되고 말았다. 그러나 『패관잡기』와 『중종실록』에 이 사건의 전말과 작품 내용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작품의 대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0세기 끝날 무렵에 이복규 선생이 처음으로 한글본 <설공찬전>을 발굴하여¹⁾ 그 이후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복규(1997)의 <설공찬전>의 창작과 표기 문제부터 장르와 문학사적 의의까지 다룬 연구, 사재동(1994), 박대복(2008), 강창규(2017)의 <설공찬전>의 작가인 채수의 정치적인 지향을 작품에 반영된다는 연구, 정환국(2017)의 <설공찬전>을 비롯해, 김시습의 『금오신화』나 「하생기우록」 등 저승체험담이나 원혼을 내세운 서사를 다룬 연구, 조도현(2006)의 <설공찬전>을 통해 초기 소설의 유통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 이진아(2005), 이복규(2014), 최수현(2014)의 <설공찬전>의 현대화 사례를 다룬 연구, 정제호(2021)의 <설공찬전>을 정신분석학의 人格分裂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 등을 축적할 수 있다. <설공찬전>에 대한 연구는 제각각 연구해왔으나 이 작품에서 나타난 영혼 이탈과 빙의, 즉 ‘환혼’²⁾ 모티프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이복규(1997)는 <설공찬전>이 실화에서 출발하여 소설적 변용이 이

-
- 1) 이복규(1997)에서 발굴의 과정 및 현존 <설공찬전>의 상태까지 설명하였다.
 - 2) 왕몽(2016)에서 환혼을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 첫째, 부활(復活), 즉 개체가 죽은 후, 개체의 영혼이 개체로 떠났다가 다시 개체로 돌아오는 경우이다. 둘째, 차시 환혼(借尸還魂), 즉 죽은 개체의 영혼이 다른 죽은 이의 시체를 빌려 재 부활하는 경우이다. 셋째, 투태(投胎), 즉 개체의 영혼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 재차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이다. 넷째, 회생(回生), 즉 죽은 개체의 영혼이 저승으로 떠났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경우이다. 다만 다시 개체로 돌아오지 않고 영혼의 상태로 이승에서 존재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환혼은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고의 환혼 개념은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산 사람의 몸에 들어가 행동하는 것이다.

루어졌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실화인지를 밝혀지지는 않았다.³⁾ 또한 <설공찬전>은 김안로의 『용천담적기』 소재 <박생>이나 『금오신화』 중의 <남염부주지>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많이 보이면서, 중국 『태평광기』나 『전등신화』 등에 수록된 작품을 수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하지 않았다.

김수연(2017)은 <설공찬전>을 중국 도교 소설 <주씨명통기>와 비교하였다. <주씨명통기>가 보여주는 冥通의 상상력이 원형이 되어 수많은 형태의 도교적 내세 서사들이 만들어진 결과 한국의 경우는 대표적 작품이 <설공찬전>이라고 하였다. 또한 <설공찬전>은 <주씨명통기>가 보여준 感通을 변주한 빙의 서사를 채택하여 내세에 대한 지식을 유통시켰다고 하였다. 이는 <설공찬전>을 중국 한나라 도교적 소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씨명통기>가 조선에 수입 및 유통된 시기는 문제가 된다.

<주씨명통기>는 한나라 劉向의 『列仙傳』에 수록된 작품이고, 『열선전』이 조선에서의 수입 유통된 시기는 조선후기로 추정되어 <설공찬전>이 창작된 한참 이후라 할 수 있다(민관동·김명신 공저 2010:44-45 참조). 이에 <설공찬전>이 <주씨명통기>의 명통 부분을 수용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다.

반면에 『전등신화』가 한국에 전해진 시기는 대략 1421년에서 1443년 사이로 추정되어(瞿佑 著, 李炳赫 譯註 2002:11 참조)⁴⁾ 연산군 때부터 조선에서 널리 유통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2일 기사 참조).⁵⁾ 또한 채수가 <설공찬전>으로 인해 탄핵을 받

3) 이복규(2003)에 따라 설공찬이 채수의 죽인이고, 채수가 그 말을 듣고 본 대로 작품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복규는 한국 최고의 죽보인 『문화류씨세보』 가정보(嘉靖譜)를 통해 설총수의 아들 중 ‘공심(公諱)’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공찬’이라는 이름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공심’은 작품의 ‘공침’이라는 인물에 해당하고 ‘공찬’은 장가가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보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4) 瞿佑 著, 李炳赫 譯註(2002)와 같이 가장 뚜렷한 추정의 근거는 김시습이 『전등신화(剪燈新話)』를 읽고 『금오신화』를 지었다는 것과 <題剪燈新話後>의 시를 남긴 것으로서, 그 이전에 전래되었음을 분명하다 하겠다.

은 후에 같은 훈구파인 김수동과 성희안 등이 상소하여 그를 옹호하였다. 상소 내용(『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20일 기사 참조)⁶⁾에서는 만약 채수의 <설공찬전>이 요망하고 인심을 선동하는 작품이라면 내용이 비슷한 『전등신화』도 똑같이 불태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 상소 내용에 따라 『전등신화』는 그때 이미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전등신화』가 당시에 널리 전파되어 채수가 그 책을 읽었을 가능성이 크고, <설공찬전>은 그 영향을 받고 썼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등신화』의 어떤 작품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전등신화』에 소재한 작품은 총 21편(瞿佑 著, 李炳赫 譯註, 2002)⁷⁾이나 있는데 어느 작품을 수용한 것인지가 관

- 5) “『전등신화(剪燈新話)』를 내리며 이르기를, 서문에 ‘정대하지 못한 임금은 오직 성색(聲色)이나 가무(歌舞)만 좋아하여 위아래가 서로 속임으로 정사가 해이해지고, 국세(國勢)가 떨치지 못한다.’ 하였는데, ‘어찌 성색이나 가무로 인하여 나라가 꼭 망하겠는가. 위아래가 서로 속임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전조(前朝)의 임금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어찌 성색 때문만이겠습니까. 역시 위아래가 서로 속여 정사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국세가 떨치지 못한 것입니다. 전조의 일은 신 등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下《剪燈新話》曰: “序云: ‘不正之君, 所好者唯聲色歌舞, 而上下相蒙, 政治廢弛, 國勢不振.’ 豈因聲色歌舞, 而國必亡乎? 由上下相蒙而然耳. 前朝之君, 亦有如此者乎? 承政院啓, 豈徒聲色? 亦有上下相蒙, 政治廢弛, 故國勢不振. 前朝之事, 臣等未詳知之”].
- 6) “대사헌 남곤·헌납 정충량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사 김수동이 아뢰기를, ‘들으니, 채수의 죄를 교수(絞首)로써 단죄하였다 하는데, 정도(正道)를 붙들고 사설(邪說)을 막아야 하는 대간의 뜻으로는 이와 같이 함이 마땅하나, 채수(蔡壽)가 만약 스스로 요망한 말을 만들어 인심을 선동시켰다면 사형으로 단죄함이 가하지만, 다만 기양(技癢)의 시킨 바가 되어 보고 들은 대로 망녕되이 지었으니, 이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벌과 상은 중(中)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태평광기(太平廣記)》·《전등신화(剪燈新話)》같은 유를 지은 자도 모조리 베어야 하겠습니까?》”[大司憲南袞, 獻納鄭忠樑啓前事, 不納. 領事金壽童曰: “聞蔡壽之罪, 斷律以絞. 臺諫扶正道闢邪說之意, 固當如是, 壽若自造爲妖言, 鼓動人心, 則可斷以死. 但爲技癢所使, 聞見而妄作, 是所不當爲而爲之也. 刑賞務要得中, 若此人可死, 則如《太平廣記》、《剪燈新話》之類, 其可盡誅乎?】.
- 7) <水宮慶會錄>, <三山福地志>, <華亭逢故人記>, <金鳳釵記>, <聊芳樓記>, <令狐生冥夢錄>, <天臺訪隱錄>, <登穆醉遊聚景園記>, <牡丹燈記>, <渭塘奇遇記>, <富貴發跡史志>, <永州夜廟記>, <申陽洞記>, <愛卿傳>, <翠翠傳>, <龍堂靈會

건이다. <설공찬전>의 환혼 모티프를 주목하여 본다면 그 중에 <金鳳叙記>라는 작품이 제일 적합하다고 본다. 유일하게 영혼의 이탈과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감을 동시에 제시하는 즉, 환혼을 활용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전등신화』도 물론 이본이 많았으나 <금봉채기>는 그 이본마다 모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설공찬전>과 『전등신화』 소재 <금봉채기>를 대상으로 두 작품에 나타난 환혼 양상을 함께 살펴보고 그 원인, 과정, 대상, 결과를 분석하며 환혼 모티프를 활용한 <설공찬전>의 문학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II. 〈설공찬전〉과 〈금봉채기〉의 서사 비교

<설공찬전>과 <금봉채기>의 수용 관계를 탐구하는 논의를 위해 전반적인 서사 진행을 주인공 설공찬과 흥랑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설공찬전>	<금봉채기>
1. 장가가기 전에 죽음 2. 죽은 누이가 공침에게 환혼하고 퇴치를 당한 다음에 공찬이 공침에게 환혼함 3. 설충수를 협박함 4. 공침이 괴롭다고 하니 다시 퇴치를 당함 5. 다시 설충수를 협박하여 자유를 획득함 6. 친구를 불러 저승 이야기를 함 7. 저승으로 떠남	1. 시집가기 전에 죽음 2. 청명절에 동생 경랑에게 환혼함 3. 경랑(몸)이 최생을 협박하여 정을 나누고 동반 가출함 4. 일 년 후에 환혼한 사실과 환혼 원인을 밝힘 5. 아버지 오방어를 협박함 6. 경랑과 최생을 혼인시킴 7. 저승으로 떠남

錄>, <太虛吏法傳>, <修文舍人傳>, <鑑湖夜泛記>, <綠衣人傳>, <秋香亭記>.

『전등신화』 소재 <금봉채기>는 <설공찬전>과 엄밀한 장르 구분으로는 다르지만 위와 같이 주인공의 죽음과 환혼 상황, 결말 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핵심 서사를 놓고 보면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1과 2에서 보듯, 설공찬과 홍량은 혼인하기 전에 병으로 죽는다. 차이가 있다면 홍량 죽음에 대한 서술 분량이 더 많고 죽음의 원인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설공찬 죽음의 원인은 그저 병이지만 부연된 설명이 없는 것이다.

3과 4에서 설공찬과 홍량은 모두 친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환혼하고 또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다.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결과는 타인의 신체 사용에 대한 자유이다. 설공찬의 경우 자유롭게 공침의 몸으로 들어가다가 나가는 것이고, 홍량은 경량의 몸으로 최생과 같이 살게 하는 것이다.

5에서 설공찬이나 홍량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다. 결말을 해당하는 6과7에서 보듯 설공찬과 홍량이 다시 저승에 가기 전에 각자 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 일을 달성한 이후에야 다시 저승으로 간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공찬전>에서 설공찬을 중심으로 핵심 서사를 <금봉채기>와 비교해 볼 때, 설공찬과 홍량은 두 인물 사이에 죽음 및 환혼, 환혼의 원인, 과정, 대상, 결과에서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이 두 작품에서 발견되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두 작품의 차이점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Ⅲ. <설공찬전>과 <금봉채기>의 환혼 양상 비교

이 장에서 <설공찬전>과 <금봉채기>에서 나타난 환혼 양상, 원인, 과정, 대상, 초래한 결과를 분석하여 두 작품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환혼 원인: 삶에 대한 미련

<설공찬전>에서 환혼이 이루어진 인물은 두 명이다. 설공찬과 그의 누이인데 이들이 일찍 요절하였다.

네 순창의셔 사던 설통난이는 지극한 가운데 사람이라 가장 가음
여더니 제 한 쫓이 이셔 서방 마즈니 무즈식하여서 일 죽고 아이
이쇼되 일흠이 설공찬이오 인명은 숙동이라니 저문 적부터 글허기
를 즐겨 한문과 문장 제법을 쇠 즐겨 넓고 글스기를 가장 잘허더니
갑조년의 나히 스물히로되 당가 아니 드렸더니 병하여 죽겨늘
(〈설공찬전〉 원문 1면)

인용문을 보면 순창에 살던 설충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딸은 결혼 직후 바로 죽고, 아들 공찬도 장가들기 전에 병들어 죽었다. 이 두 사람이 차례대로 다른 사람의 몸에 환혼하게 되었다.

통쉬 울고 올라와 보니 병이 더욱 디터 그지업시 설워허겨늘 엇디
이려허겨노 허야 공탐이드려 무런대 즘즘하고 누어서 되답 아니허
겨늘 제 아버님 슬허더 울고 의심허니 요괴로운 꺾거시 빌미 될가
허야 도로 김석산이를 청--[석산이는 꺾곳애 허는 방법허는 사이다
라] 석산이 와서 복성화 나모채로 마리티고 방법허여 부작용허니 그
꺾져시니로되 나는 겨집이모로 몬 이기여 나거니와 내 오라비 공찬
이를 드려오리라 허고 가서 이윅고 공찬이 오니 그 겨집은 없더라
(〈설공찬전〉 원문 3-4면)

인용문을 보면 설충수의 집에 귀신이 나타나 설충수의 아들 공침에게 들어가 병들게 만든다. 설충수가 귀신 퇴치를 위해 주술사 김석산을 불러다 조치를 취하였다. 설공찬의 누이가 먼저 공침의 몸으로 환혼해 있었는데 주술사 김석산을 이기지 못하여 그의 몸에서 나가고 동생 설공찬의 혼을 불렀다. 설공찬이 누이와 똑같이 공침의 몸으로 환혼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설공찬의 혼령이 공침에게 수시로 들어가 왕래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들이 환혼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현존하는 <설공찬전>이 미완결된 작품으로써 이들이 환혼하게 되는 원인은 작품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허나 어숙권이 남긴 『패관잡기』에 따라 설공찬의 환혼 원인을 엿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재(懶齋) 채수(蔡壽)가 중종 초에 《설공찬환혼전(薛公瓚還魂傳)》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괴이하다. 그 끝에 이르기를, ‘설공찬이 남의 몸을 빌려 몇 달 동안을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원한과 저승에서 들은 일들을 아주 자세히 말하고, 또 말하고 쓴 것을 그대로 써 보게 하여 한 자도 틀리지 않는 것은 그것을 전하여 믿게 하고 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언관(言官)이 그것을 보고 논박하기를, ‘채 아무개가 허황되고 거짓된 책을 지어서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고 있으니, 사형에 처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의 허락하지 않고 파직시키는 것으로 그쳤다.”⁸⁾

이 기록을 보면 설공찬이 자기의 원한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몸으로 환혼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원한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금봉채기>에서는 여주인공 흥랑(興娘)이 환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공찬처럼 흥랑도 역시 일찍 죽었다.

최씨와 오방어는 이웃으로 친분이 매우 두터웠다. 최씨 집에는 흥가(興哥)라는 아들이 있고, 오방어의 집에는 흥랑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모두 강보에 싸인 어린 아이였다. 하루는 최씨가 방어에게 그 집 딸로 며느리 삼기를 청했다. 방어가 이를 허락하자 최씨는 금으로 봉을 새긴 비녀 한 개를 예물로 보내와 이것을 신표로 약혼했다.

8) “蔡懶齋壽中廟初，著薛公瓚還魂傳。極怪異，末云。公瓚借人之身，淹留數月，能言己怨及冥間事甚詳。令一從所言及所書書之，不易一字者，欲其傳信耳。言官見之駁曰：‘蔡某著荒誕不經之書，以惑人聽，請寘之死，’上不允，止罷其職。”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최씨는 먼 지방에 벼슬살이로 가게 되어 가족을 데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떠난 지 15년이 지났으나 서로 일자 소식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규중 깊이 고이고이 자란 홍량은 방년 19세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마음이 점점 초조하여 남편 방어에게, “여보, 최씨집 도련님이 한번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되었는데, 소식도 끊어지고 홍량은 이렇게 자랐으니 전에 한 약속만 지키고 있다가 혼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하고 속을 태웠다... 딸 홍량도 최생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로 인해 병이 들었다. 그리고 병석에서 애를 태우다가 반년 만에 죽고 말았다.⁹⁾

(瞿佑 著, 李炳赫 譯註 2002:275)

<금봉채기>에서 여주인공 홍량과 남주인공 흥가는 정혼한 사이다. 강보(襁褓)였을 때부터 가까이 살았지만 흥가의 이사로 인해 둘은 15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 홍량은 이제 19세가 되는데 약혼자 흥가가 소식이 없어 병이 들고 그로 인해 반년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설공찬전>에서 설공찬과 그의 누이의 사망 사유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금봉채기>에서는 여주인공이 자기의 혼사장애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이 죽은 홍량이 다시 환혼하게 되었다.

그때 최생이 소매 안에서 금비녀를 꺼내어 방어 앞에 내놓았다. 이것을 본 방어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며, “아니, 이것은 죽은 내 딸 홍량의 관 속에 넣어준 것인데, 어찌하여 자네 손에 들어갔던 말인가?” 하고 의아하던 차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경량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바로 당 앞으로 나와 아버지께 절하며, “저 홍량은 불행하게도 일찍 부모님을 떠나 쓸쓸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나

9) “吳防禦居春風樓側，與宦族崔君為隣，交契甚厚。崔有子曰興哥，防禦有女曰興娘，俱在襁褓。崔君因求女為興哥婦，防禦許之，以金鳳釵一隻為約。既而崔君遊宦遠方，凡一十五載，並無一字相聞。女處閨闈，年十九矣。其母謂防禦曰：‘崔家郎君一去十五載，不通音耗。興娘長成矣，不可執守前言，令其挫失時節也。’女亦望生不至，因而感疾，沉綿枕席，半歲而終。”

군님과 인연은 아직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나의 아우 경랑으로 하여금 저와의 인연을 이어 최생과 혼인을 맺게 해주시기를 바래서입니다. 만약 저의 정을 들어주시면 경랑의 병이 곧 나을 것이고,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경랑의 목숨은 곧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몸은 확실히 경랑인데, 말씨와 행동 거지는 영락없는 흥랑이었다.¹⁰⁾

(瞿佑 著, 李炳赫 譯註 2002:277-278)

흥랑은 죽었지만 동생 경랑의 몸으로 환혼하여 약혼자 흥가와 1년 정도 같이 살았다가 부모님 앞에 가서 실체를 밝혔다. 그리고 경랑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 자기의 미완성된 인연을 이어달라고 청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흥랑이 환혼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완결짓지 못한 인연을 잇기 위한 것이다. 약혼한 후에 상대방을 15년 동안 못 만나고 그 약혼자를 기다리다 못해 일찍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흥랑에게는 恨밖에 남지 않았다. 이 한을 풀리려고 동생 경랑의 몸으로 환혼하여 이 미완성한 인연을 잇는 것이다. 이에 <금봉채기>에서 나타난 환혼의 원인은 일종의 혼사장애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설공찬전>에서 설공찬이 일찍 죽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장가들기 전에 죽었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어숙권의 말대로 원한으로 인해 죽었을 수도 있고, 그 원한은 혼사의 미완성으로도 추측된다. 왜냐하면 죽었다고만 표현하면 되는 것을, 혼사를 언급한 데에는 그것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설공찬전>의 결말이 없어 그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

10) “生於袖中，出金鳳釵以進。防禦見，始大驚曰：‘此吾亡女興娘殉葬之物也，胡為而至此哉？’疑惑之際，慶娘忽於床上欻然而起，直至堂前，拜其父曰：‘興娘不幸，早辭嚴侍，遠棄荒郊。然與崔家郎君緣分未斷，今之來此，意亦無他，特欲以愛妹慶娘，續其婚爾。如所請肯從，則病患當即痊愈，不用妾言，命盡此矣。’舉家驚駭，視其身則慶娘，而言辭舉止則興娘也。”

또한 설공찬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글재주가 있지만 아직 과거를 치르지 못한 채로 죽었다. 공부 못하는 공침에게 환혼하여 저승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설공찬이 자기의 이루어지지 못한 입신양명 때문에 환혼한 것일 수도 있다.

이상에서 다룬 내용을 종합하면 <금봉채기>에서 홍랑이 혼사장애로 인해 환혼을 하고 <설공찬전>에서 설공찬이 원한으로 인해 환혼을 하니, 그 원인을 작품의 손실로 인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금봉채기>처럼 설공찬 역시 혼사를 포함한 원한으로 인해 환혼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혼사장애든 정치 포부든 이는 모두 삶에 대한 미련이라고 할 수 있다.

2. 환혼 과정: 冥司가 준 이승의 체류

<설공찬전>의 설공찬이나 <금봉채기>의 홍랑은 죽고 난 다음에 환혼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는 명사(冥司)의 역할이 크다. <설공찬전>에서 이승에서의 체류 시간은 염라대왕이 준 것이고 <금봉채기>에서는 후토부인이 준 것이다. <설공찬전>에서 설공찬이 사촌동생 공침에게 환혼하여 자기의 친구를 불러왔다. 친구 설원과 윤지신에게 저승에 대한 말을 하고 또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다.

홀른 선화황제 신하 애박이를 염나왕이 브려 아브는 나의 ㅁ장
어엿비 너기는 사름이러니 혼 희만 자바오디 마르쇼셔 청혀늘 염
나왕이 널오디 이는 턴즈의 말슴이라 거스디 묻호고 브드이 드를
거시어니와 혼 희는 너모하니 혼 들만 주노이다 햏혀늘 애바기 다
시 혼 희만 주쇼셔 슬와날 염나왕이 대로햏야 널오디 황데 비록 턴
진들 사름 주기며 사르며 햏기는 다 내 권손의 다

(〈설공찬전〉 원문 12면)

성황황제는 신하 애박이 이승에서 더 체류하였으면 좋겠다고 염라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염라대왕이 이 애박이에게 1년의 시간을 못 주고 1달만 더 체류하다가 오라는 것이다. 애박이 체류 시간을 더 원했지만 염라대왕의 대노로 인해 1달의 시간만 얻었다. 이 모습을 본 설공찬도 애박과 마찬가지로 염라대왕에게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는 다시 이승에 와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환혼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시간은 어숙권의 말대로 몇 개월이고, 이 몇 개월 동안 자기의 원한과 저승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승을 떠난다. 그러기에 설공찬의 환혼 과정 중에서 염라대왕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설공찬전>의 환혼 과정에서 염라대왕이 설공찬에게 이승의 체류 시간을 주었으나 <금봉채기>에서는 후토부인이 그 역할이다.

“은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몸은 확실히 경량인데, 말씨와 행동거지는 영락없는 흥량이였다. 아버지 방어는 따져 물었다. ‘너는 벌써 죽었는데 어찌 다시 세상에 나타나 이와 같이 미혹하게 하느냐?’ 그는 대답하기를, ‘예, 제가 죽어 저승에 갔더니 명부의 관리는 죄가 없다고 하여 구금하지 않고 후토부인의 막하에 예속시켜 천제께 올리는 글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의 인연을 다하지 못했다고 특별히 1년간의 말미를 주어, 다시 최낭군과 한동안 인연을 맺어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 방어는 이런 애절한 사연을 듣고 그러면 너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¹¹⁾

(瞿佑 著, 李炳赫 譯註 2002:278)

저승에서 후토부인은 흥량에게 문서 올리는 일을 시켰는데 그가 일을 무척 잘하고 또한 이승에서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어, 이승에 체류할 시간을 주었다. 그 시간은 1년이다. 흥량이 자유를 얻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자기 동생 경량의 몸으로 환혼을 하게 되었다.

11) “舉家驚駭，視其身則慶娘，而言辭舉止則興娘也。父詰之曰：‘汝既死矣，安得復於人世為此亂惑也?’對曰：‘妾之死也，冥司以妾無罪，不復拘禁，得隸后士夫人帳下，掌傳牋奏。妾以世緣未盡，故特給假一年，來與崔郎了此一段因緣爾。’父聞其語切，乃許之。”

3. 환혼 대상: 가족을 통한 환혼

<설공찬전>과 <금봉채기>에서 환혼하는 대상은 공통된 면을 보인다. 즉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환혼하는 것이다. <설공찬전>에서 설공찬이나 설공찬의 누이가 설공침의 몸으로 환혼을 하는데 이 설공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설공찬의 사촌 동생이다.

설충난의 아이 일흠은 설통쉬라 통쉬 아드릭 일흠은 공팀이오 오 명은 업동이니 셔으른셔 업살고 업중의 아이 일흠은 업동이니 그는 순창셔 사더니 업동이는 저머셔브터 글을 힘셔 비호되 업동과 반만 도 몰호도 글스기도 업동이만 몰호더라

(<설공찬전> 원문 2면)

설충수는 설공찬 아버지 설충난의 동생이고, 설충수에게 아들 두 명이 있는데 하나가 설공침이다. 태명은 업동이고 원래는 서울에서 살았으며 순창 집에 내려와서 놀 때 설공찬이 그의 몸으로 환혼하는 것이다.

정덕 무신년 칠월 스므닐웬날 희 달 대예 통쉬 집의 올제 인는 아히 형금가지 닙홀 혀더니 고은 겨집이 공동으로서 느려와 춤추거 놀 기동이 ㅁ장 놀라 제 지집의 계유 드러가니 이욕고 통쉬 집의셔 짓궂 소리 잇거늘 무르니 공팀이 뒷가니 갖다가 병 어더 다히 없더 더다가 ㅁ장 오라 계야 인기를 츠려도 괴운이 미치고 늌과 다르더라 설통쉬 마춤 식골 갖거늘 즉시 종이 이런 줄을 알원대 통쉬 올고 올라와 보니 병이 더욱 디터 그지업시 설워호거늘 엇디 이러호거뇨 호야 공팀이드려 무른대 줌줍호고 누어서 덕답 아니호거늘 제 아버지 닙 슬호더 올고 의심호니 요괴로운 췌거시 빌미 될가 호야

(<설공찬전> 원문 2-3면)

설공침이 뒷간에 가서 노는데 고운 여자가 공중에서 내려와 춤추는 것이었다. 그러다 공침이 병이 들었고 아버지 설충수가 그에게 아픈 이

유를 물으니 대답도 하지 않는다. 설총수가 자기 아들이 귀신때문에 아픈가 하여 주술사 감석산을 불렀는데 그제서야 공침이 병의된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설공찬 누이가 그 공중에서 내려온 여자이고 공침에게 환혼한 것이다. 후에 설공찬을 데려오고 그도 공침에게 환혼하였다.

<금봉채기>를 보면 여주인공이 환혼하는 방식이 <설공찬전>과 유사하다. 즉 홍랑이 자기 동생 경랑에게 환혼하는 것이다. 청명절에 방어 집 온식구들이 홍랑의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그 식구들이 가마를 타고 집에 들어와 중문을 지나갈 때 금비녀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최생 즉 홍랑의 약혼자가 주웠다. 그 금비녀는 바로 홍랑의 예물인데 방어가 딸이 안타까워서 죽은 그녀에게 꽂아준 것이다. 그러나 최생은 그 사실을 모르고 금비녀를 주워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최생은 할 수 없이 저기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생각해 보니.....갑자기 밖에서 ‘똑똑’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생은 이상하여 ‘밖에 누구요?’하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가만히 있으니 잠시 후에 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어보면 역시 대답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기를 서너 번 되풀이했다. 최생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그러자 한 미녀가 문앞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치맛가락을 살며시 걷어잡고 살짝 최생의 방으로 들어왔다. 최생은 그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다소 굽이 숙이고 숨을 낮추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낭군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바로 홍랑의 아우 경랑입니다. 조금 전에 가마 밑에 비녀를 떨어뜨렸는데 주워보셨는지요?’하고 느닷없이 최생을 끌어당겨 잡자리에 들려고 했다.”¹²⁾

(瞿佑 著, 李炳赫 譯註 2002:276)

12) “不可得而入矣。遂還小齋，明燭獨坐，自念婚事不成，隻身孤苦，寄跡人門，亦非久計，長嘆數聲，方欲就枕。忽聞剝啄扣門聲，問之則不答，不問則又扣，如是者三度。乃啓關視之，一美姝立於門外，見戶開，遽褰裙而入。生大驚，女低容飲氣，向生細語曰：‘郎不識妾耶？妾即興娘之妹慶娘爾，向者投釵轎下，郎拾得否？’即挽生就寢。”

홍가가 방으로 들어가 혼자서 자기의 고독한 처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홍랑의 동생 경랑이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었더니 경랑이 그 금비녀를 자신이 가마에서 떨어트린 것이라고 말하였다. 금비녀는 홍랑의 예물로서 그의 시체에 있어야 하는데 성묘 이후 경랑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 금비녀를 홍랑의 약혼자 홍가에게 줌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홍랑의 산소를 갔다온 다음에 그녀가 자기 동생에게 환혼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자기의 예물을 약혼자 홍가에게 일부러 주어 관심을 끈 것이다. 늦은 밤에 홍가의 방으로 찾아가서 잠자리 청하는 것도 경랑이 아닌 환혼된 홍랑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설공찬전>과 <금봉채기>에서 보이는 공통점 중 하나는 친척이나 가족을 통해 환혼하는 것이다.

4. 환혼의 결과: 원한을 풀어주기

<설공찬전>에서 설공찬이 공침에게 환혼한 다음에 공침은 병이 들었다. 그리고 공침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주술사 김석산을 불렀다가 설공찬에게 협박을 당하였다.

공찬이 와서 제 스촌 아으 공침이를 붓드러 입을 비러 날오디 아
즈바님이 빅단으로 양지하시나 오직 아즈바님 아들 상홀 뿐이디위
나는 모양 하눌 그으로 든니거든 내 몸이야 상홀 주리 이시리잇가
하고

(<설공찬전> 원문 4면)

설공찬이 자기 숙부에게 만약 주술사를 데리고 자기를 퇴치하면 상하는 것은 공침의 몸뿐이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설공찬이 잠시 나간 사이에 공침이 너무 힘든 모양을 보니 설충수가 설공찬의 경고를 무시하고 김석산을 다시 불렀다. 공찬이 이를 안 다음에 설충수 앞에서 공침의 몸을 괴롭혔다.

공찬의 녀석듯고 대로하야 날오되 이리터시 나를 뵈로시면 아즈
바님 해용을 변화 호링이다 하고 공탐의 스시를 왜히고 눈을 뿌니
즈의 직야지고 쏘 혀도푼 배여내니 고 우히 오르며 꺾뵈겨티도 나
갓더니 늘근 종이 겨퉁셔 병구의 혀다가 쉰온대 그 종조차 주것다가
오라개야 기니라 공탐의 아바님이 하두러 녀술 일혀 다시 공찬이 향
하야 비로되 석산이를 노여 브르디 말마하고 하 바니 2장 오라기
야 얼굴이 잇더라

(<설공찬전> 원문 6-7면)

설충수가 자기 아들의 몸이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다시 주술사를 부르지 않겠다고 설공찬에게 약속을 하였다. 그 다음에
설공찬이 공침의 몸으로 환혼하면 그 몸이 생기가 있고 설공찬이 떠나
면 그 몸이 항상 기운이 없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 처한다.

앞에서 언급한 듯이, 설공찬은 자기가 못한 입신양명으로 인해 환혼
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설공찬이 자기 친구를 불러 저승의 이야기
를 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정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
승의 위치, 저승 나라의 이름, 저승의 심판 양상, 저승 열라왕이 있는
궁궐의 모습, 저승 나라와 이승 나라의 관계까지 포함된다. 어숙권의 기
록에 의하면 설공찬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승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문
다음에 떠나는 것이다.

반면에 <금봉채기>에서는 홍량이 혼사장애로 죽었기 때문에 이승에
서 인연이 남아있다. 이에 홍량이 동생 경량에게 환혼한 다음에 자기의
인연을 잇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환혼하자마자 당일 밤에 홍가의 방으
로 들어가서 잠자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홍가의 거부를 당하자 홍량
이 그를 협박하였다.

(경량에게 환혼한 홍량이 잠자리를 요구하자) “최생은 그녀의 아버
지가 자신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완강히 거절했다. 두세 번 이렇게 하자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붉

하며 화를 내어, ‘그러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친아들이나 친조카처럼 여기시고 당신을 우리 집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도 모르고 깊은 밤에 나를 여기까지 유인해 왔으니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내가 이 일을 당장 아버지께 알려 관청에 고소하면 관청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요.’라고 위협하며 도로 뒤집어씌우려 하였다. 최생은 겁에 질려 할 수 없이 그녀의 청대로 함께 잤다.”¹³⁾

(瞿佑 著, 李炳赫 譯註 2002:276)

경랑에게 환혼한 홍량이 최생에게 가서 잠자리를 청하였지만 최생은 오씨 집안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녀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홍량이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대로 최생에게 누명을 씌우겠다고 그를 협박하였다. 최생은 이 협박에 굴복하여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다. 그 이후로 한달동안 밤마다 경랑에게 환혼한 홍량이 최생의 방으로 드나들었다. 어느 날 밤에 둘이 같이 도주하고 밖에서 1년 정도 살다가 다시 오씨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최생이 먼저 오방어에게 자기가 경랑과 사통하고 도망간 일을 다 털어놓았지만 오방어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다. 경랑이 계속 아픈 채로 침대에만 누워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홍량이 경랑의 몸으로 환혼한 다음에 경랑은 <설공찬전>의 공침처럼 계속 병든 채로 기운이 없었다.

경랑에게 환혼한 홍량이 오방어에게도 협박을 하였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경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바로 당 앞으로 나와 아버지께 절하며, ‘저 홍량은 불행하게도 일찍 부모님을 떠나 쓸쓸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낭군님과의 인연은 아직 다하지 않았습시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나의 아우 경랑으로 하여금 저와의 인연을 이어 최생과

13) “生以其父待之厚, 辭曰:‘不敢.’ 拒之甚確, 至於再三. 女忽顛爾怒曰:‘吾父以子姪之禮待汝, 置汝門下. 汝乃於深夜誘我至此, 將欲何為! 我將訴之於父, 訟汝於官, 必不捨汝矣.’ 生懼, 不得已而從焉.”

혼인을 맺게 해주시기를 바래서입니다. 만약 저의 정을 들어주시면 경량의 병이 곧 나을 것이고,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경량의 목숨은 곧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몸은 확실히 경량인제, 말씨와 행동거지는 영락없는 흥량이였다...아버지 방어는 이런 애절한 사연을 듣고 그러면 너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제서야 경량의 몸을 빌린 흥량은 용모를 단정히 가다듬어 아버지께 사례한 뒤, 다시 최생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작별했다.”¹⁴⁾

(瞿佑 著, 李炳赫 譯註 2002:277-278)

경량에게 환혼한 흥량이 동생의 몸을 괴롭히면서 아버지 오방어를 협박하였다. 동생 경량과 최생의 인연을 하락하면 자기가 떠나고 경량의 병도 나아질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경량의 목숨을 끊어주겠다고 하였다. 오방어는 이미 딸 하나를 잃었고 둘째 딸마저 잃을 수는 없다. 또한 흥량의 사연을 듣고 경량과 최생의 일을 허락하였다. 흥량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 동생 몸에서 나갔다. 흥량이 떠나고 나서 경량은 죽은 채로 되지만 약을 먹고 바로 소생하였다. 하지만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그 이후 경량과 최생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를 통해 설공찬이나 흥량은 자기의 환혼 대상을 괴롭히면서 삼촌이나 아버지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혼된 대상, 공침이나 경량은 그 과정에서 계속 기운이 없는 채로 병들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설공찬전>과 <금봉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慶娘忽於床上歘然而起，直至堂前，拜其父曰：‘興娘不幸，早辭嚴侍，遠棄荒郊。然與崔家郎君緣分未斷，今之來此，意亦無他，特欲以愛妹慶娘，續其婚爾。如所請肯從，則病患當即痊除，不用妄言，命盡此矣。’舉家驚駭，視其身則慶娘，而言辭舉止則興娘也…父聞其語切，乃許之。即斂容拜謝，又與崔生執手獻敬為別。”

		<금봉채기>	<설공찬전>
환혼 원인		혼사장애	성인이 못됨
환혼 과정		후토부인이 준 이승의 체류	염라대왕이 준 이승의 체류
환혼 대상		동생	사촌동생
환혼 결과	병 들	○	○
	퇴마	없음	○
	저승 이야기	없음	○
	행동거지 변함	○	○
	한 풀기	○	자료 손실로 인해 알 수 없음
	협박	○	○

IV. 맺음말: 한·중 소설에 나타난 환혼 양상이 지니는 의미

『전등신화』 소재 <금봉채기>는 환혼을 통해 이승에서 미완성한 인연을 재연결하는 서사를 보여주었다. <금봉채기>에서의 같은 환혼류의 작품 중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설공찬전>이 있다. <설공찬전>은 <금봉채기>가 보인 환혼을 하는 목적에서 구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홍량의 이승에서의 연애 성취가 주요 목적에 비해 공찬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고 그저 환혼을 통해 자기의 저승체험담을 위주로 제시한 것뿐이다.

<설공찬전>은 한문으로 창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글로 번역되거나 필사되어 전국적으로 읽혔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까지 언급될 정도로 그 작품의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작가 채수의 정치적 사건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필화를 당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바로 ‘환혼’이다.

<금봉채기>는 중국의 환혼류 소설으로서 過渡期에 처해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 전에 唐傳奇소설에서는 빙의 없이 육체에서의 영혼 이탈

만으로 남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離魂記>가 이미 나와 있었다. <금봉채기>가 환혼 모티프를 제시한 이후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와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 즉 환혼하는 이야기는 『剪燈餘話』¹⁵⁾에도 수록되어 있다. <賈雲華還魂記>가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가운화환혼기>에서는 영혼이 산 사람의 몸이 아닌 죽은 지 3일밖에 안 되는 시신, 즉 아직 부패하지 않은 사람의 몸으로 환혼하였다. 淸에 이르러 『聊齋志異』·<阿宝>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인체로 환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앵무새 같은 동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말하자면 환혼류 소설은 당송에서 출발하여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 시기에 이르러 그 서사 양상이 거듭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환혼 모티프는 중국에서 꾸준히 재창작되어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¹⁶⁾

그러나 한국에 다른 사람 몸으로 빌려 환혼하는 모티프를 활용한 소설은 <설공찬전>이 유일하다. 이전에 창작된 『금오신화』에서는 저승체험담을 많이 활용하였고 그 전통은 <설공찬전> 역시 이어받았다. 즉 설공찬이 저승에 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 몸으로 빌려 환혼하는 모티프를 활용한 <설공찬전>이 창작된 이후 이러한 서사 양상을 모방하거나 활용한 작품은 없다. <운영전>이나 『素齋紀異』의 <하생기우전>에서는 원혼만이 존재하고 <설공찬전>처럼 원혼이 다른 사람의 몸이나 시체 등으로 환혼하는 작품은 없다. 그 이유를 <설공찬전>으로 인해 채수가 당한 필화사건을 단서로 추측할 수 있다.

중종 때 관련 기사(『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2일 己酉 1번째 기사 참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채수(蔡壽)가 <설공찬전(薛公瓚傳)>을 지었는데, 내용이 모두 화

15) 구우(瞿佑)의 『전등신화(剪燈新話)』가 일세를 풍미하자 명나라 李禎이 이를 모방하여 창작한 전기소설집이다.

16) 중국 환혼류 소설이 거듭 발전하게 되는 이유를 추후 연구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복(禍福)이 윤회(輪廻)한다는 논설로, 매우 요망(妖妄)한 것인데 중외(中外)가 현혹되어 믿고서, 문자(文字)로 옮기거나 언어(諺語)로 번역하여 전파함으로써 민중을 미혹시킵니다. 부(府)에서 마땅히 행이(行移)하여 거두어 들이겠으나, 혹 거두어들이지 않거나 뒤에 발견되면,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설공찬전》은 내용이 요망하고 허황하니 금지함이 옳다. 그러나 법을 세울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¹⁷⁾

기록에 따라 <설공찬전>은 한문으로 베끼거나 한글로 번역했을 만큼 널리 전파되었고 또한 많이 읽혔다. 이는 <설공찬전>이 지니는 대중성을 엿볼 수 있기도 한 부분이다. 이러한 대중성은 다름 아니라 환혼 모티프가 가져온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국적 유통 가능성과 동시에 <설공찬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즉 이 작품이 내용의 요망함을 이유로 금서로 지정된 것이다. 금서로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며칠 지나 어명(『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5일 壬子 7번째 기사 참조)을 내려 이 작품은 아예 불태워지는 운명을 마주하였다.

“《설공찬전(薛公瓊傳)》을 불살랐다. 숨기고 내어놓지 않는 자는, 요서은장률(妖書隱藏律)로 처벌할 것을 명했다.”¹⁸⁾

<설공찬전>을 불로 태우라고 하니 상하민중 모두가 공연히 이 작품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암암리에 읽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공찬전>에 나타난 환혼 양상의 요망함에 대한 징벌은 창작층을 경

17) “己酉臺諫啓前事. 憲府啓: ‘蔡壽作《薛公瓊傳》, 其事皆輪回、禍福之說, 甚爲妖妄. 中外惑信, 或譌以文字, 或譯以諺語, 傳播惑衆. 府當行移收取, 然恐或有不收入者, 如有後見者治罪.’ 答曰: ‘《薛公瓊傳》, 事涉妖誕, 禁戢可也. 然不必立法. 餘不允.’”

18) “命燒《薛公瓊傳》, 其隱匿不出者, 依妖書隱藏之律, 治罪.”

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작품 이후에 환혼 모티프를 활용한 작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작층은 이 모티프가 지니는 대중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다시 비슷한 작품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중국 환혼류 소설이 많은 것에 비해 한국의 <설공찬전>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 몸으로 빌려 환혼하는 작품으로써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창규(2017), 「〈설공찬전〉 탄생의 문학적 기반과 필화사건의 배경에 대하여」, 『동남어문논집』 44, 동남어문학회, 165-190.
- 김수연(2017), 「명통(冥通)의 상상력, 죽음과 불사의 대화 -〈주씨명통기(周氏冥通記)〉와 〈설공찬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133-162.
- 민관동·김명신 공저(2010), 『조선시대 중국고전소설의 출판본과 번역본 연구』, 학고방.
- 박대복(2008), 「〈설공찬전〉의 필사와 괴이한 문학관」, 『어문연구』 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69-296.
- 박희병(1992),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 사재동(1994), 「〈설공찬전〉의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 25집, 어문연구학회, 267-294.
- 소인호(1998), 「〈설공찬전〉 재고」, 『어문논집』 37, 안암어문학회, 47-62.
- 어숙권, 『패관잡기』 제2권.
- 왕몽(2016), 「15世紀韓中傳奇小說의 還魂母題比較研究」, 『열상고전연구』 52, 열상고전학회, 267-305.
- 이복규(1997), 「〈설공찬전〉국문본의 발견 경위와 의의」, 『고소설연구』 3, 한국고소설학회, 5-25.
- 이복규(1997), 『설공찬전』, 서인사.
- 이복규(2003), 「〈설공찬전〉이 실화에서 유래한 소설일 가능성」, 『국제어문』 28, 국제어문학회, 67-84.
- 이복규(2004), 「16세기 소설사의 재인식: 〈설공찬전〉 파동과 16세기 소설인식의 추이」, 『민족문화사연구』 25,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38-63.
- 이복규(2014), 「〈설공찬전〉과 매체 변화, 그 양상과 의미」, 『국학연구론총』 14집, 태민국학연구원, 127-149.

- 이복규(2018), 『한글로 읽힌 최초 소설: <설공찬전>의 이해』, 지식과 교양.
- 이진아(2005), 「지리다도파도파 설공찬전 연구: 전통서사문학의 현대극적 수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11, 한국공연문화학회(구한국고전희곡학회), 189-221.
-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2일 기사.
- 정재호(2021), 「파격의 서사 <설공찬전>, 혐오에 맞서다」, 『한성어문학』 44,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27.
- 정환국(2017), 「조선전중기 원혼서사의 계보와 성격」, 『동아어문학』 70, 동아어문학회, 159-194.
- 조도현(2006), 「<설공찬전>을 통해 본 초기소설의 유통양상」,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441-465.
-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20일 기사.
-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2일 己酉 1번째 기사.
-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5일 기사.
- 최수현(2018), 「고전소설의 콘텐츠화의 한 사례 고찰-웹소설 <설공찬환혼전>의 고소설 <설공찬전> 변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6, 이화어문학회, 155-178.
- 瞿佑 著, 李炳赫 譯註(2002), 『剪燈新話』, 太學社.

❖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Ghost Possession Aspects shown in
〈Seolgongchanjeon〉 and 〈Geumbongchaegi〉

QIU RUIQING
The University Of Seoul

In this article, we compared <Seolgongchanjeon> and <Geumbongchaegi> from 『Jeondeungsinhwa』 and focused on the phantom of Ghost possession used in the two works. The result is that although the two works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also seem to have differences.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first, the main character goes to the underworld after death, but is allowed to return to this world by an Official of the underworld. Second, the main character's soul returns to this world and is possessed by another's body. Third, the way of possession is through the body of the main character's relatives or family. Fourth, the soul relieved its resentment by possessing another person's body. Fifth, the person who has been possessed is sick or has no energy. Finally, after the Ghost's possession, the behavior of those who were possessed is the same as the behavior of the one who posses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orks, first is that in <Geumbongchaegi> there is no exorcism, while in <Seolgongchanjeon> there is an exorcism scene. Second, the stories of the underworld were barely mentioned in <Geumbongchaegi>, but the stories of the underworld were mainly mentioned in <Seolgongchanjeon>.

Through this comparison, in terms of the Ghost possession aspects, we can see that Korea's <Seolgongchanjeon> and China's <Geumbongchaegi> from 『Jeondeungsinhwa』 have something in common, and there are also many differences. The <Seolgongchanjeon> which was created at a later time, may borrowed the motif of the Ghost possession of <Geumbongchaegi>, but <Seolgongchanjeon>'s aspect of the Ghost possession has its strong unique characteristics. So <Seolgongchanjeon>'s writer Chae-su's independent invention seems to be stronger than borrowing. Although this Ghost possession motif brought popularity to <Seolgongchanjeon>, it also caused fatal damage to this work. In other words, <Seolgongchanjeon> was banned by the Emperor and then burned. Also, due to this damage, later works could no longer utilize the Ghost possession motif. Accordingly, only <Seolgongchanjeon> which uses the Ghost possession motif in Korean novels has its own unique meaning, unlike many Chinese novels about the Ghost possession motif.

Keywords: Ghost Possession, Seolgongchanjeon, Geumbongchaegi,
Jeondeung Myth, Novel about Ghost Possession,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 논문투고일 : 2024. 01. 10

■ 심사완료일 : 2024. 01. 31

■ 게재확정일 : 2024. 02. 06